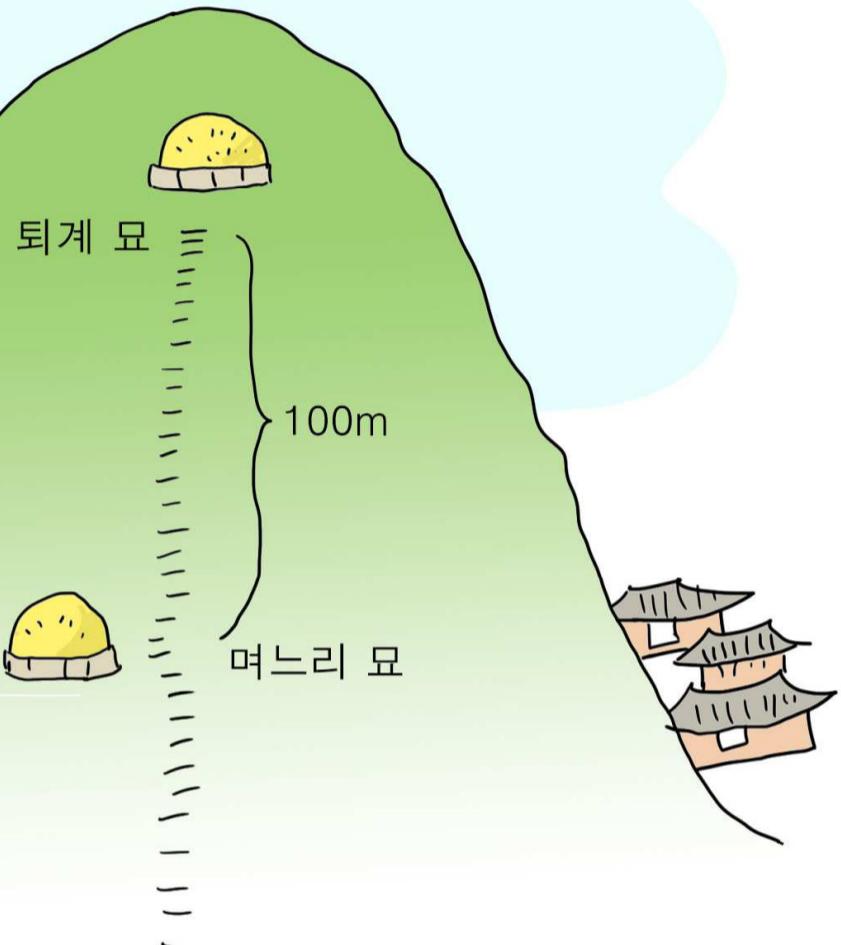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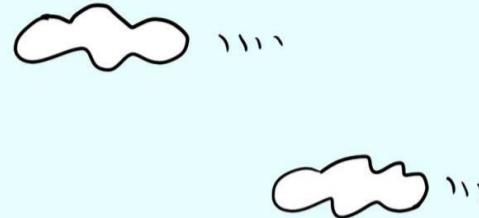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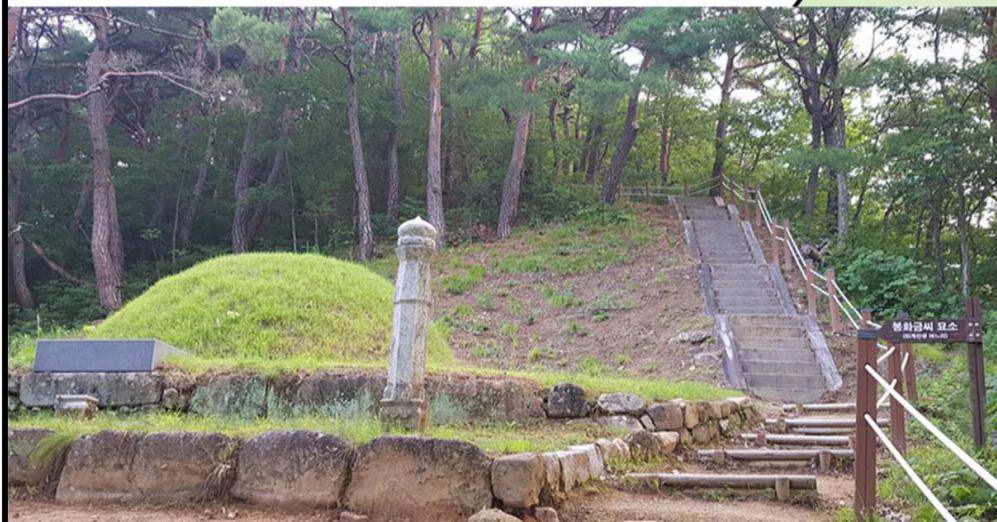


47. 퇴계선생의 가족, 이웃, 제자 사랑

(1) 며느리 사랑

안동의 퇴계리 건지산에는
퇴계의 묘가 있다.

그 100m 아래에는 맘며느리인
봉화 금씨의 묘가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된 것일까?



가족간에는 당연하다고 여길 일에도
퇴계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곧 시아버님 생신인데
따뜻한 버선을 만들어
드려야지.



고맙다. 올겨울은
며느리 덕에 발이
고생하지 않겠구나.



윗사람이라고 받기만 하면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난 무슨
선물을 할까?



퇴계는 가족간에 당연하다고 여길 일에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어머,
아버님이 참빗을
보내셨어요.



어떤 때는

여보, 이번에 아버님을
뵈었는데 옷이 너무
낡은 것 같았어요.

어머,
그래요?



맡며느리는 옷을 한벌 곱게 지어서
보내드렸다.



퇴계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당시 여인들에게 소중한
바늘을 사서 보냈다.

어머, 아버님,
안보내 주셔도
되는데...

바쁠텐데
내 옷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한번은 맡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습니다

걱정이구나.



퇴계는 손수 의학책을 뒤져 며느리의 증상에 맞는 처방을 찾아 약을 지어 보냈다.



이렇듯 무엇을 받으면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반드시 답례를 하고, 며느리의 건강도 살뜰히 챙기니



만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따랐다.



퇴계가 세상을 뜨자 장례기간 중에 만며느리도 세상을 뜨고 만다.



그때 유언하기를...

내 생전 시아버님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많았으니 죽어서라도
정성껏 모실 수 있게 시아버님
묘소 가까운 곳에 묻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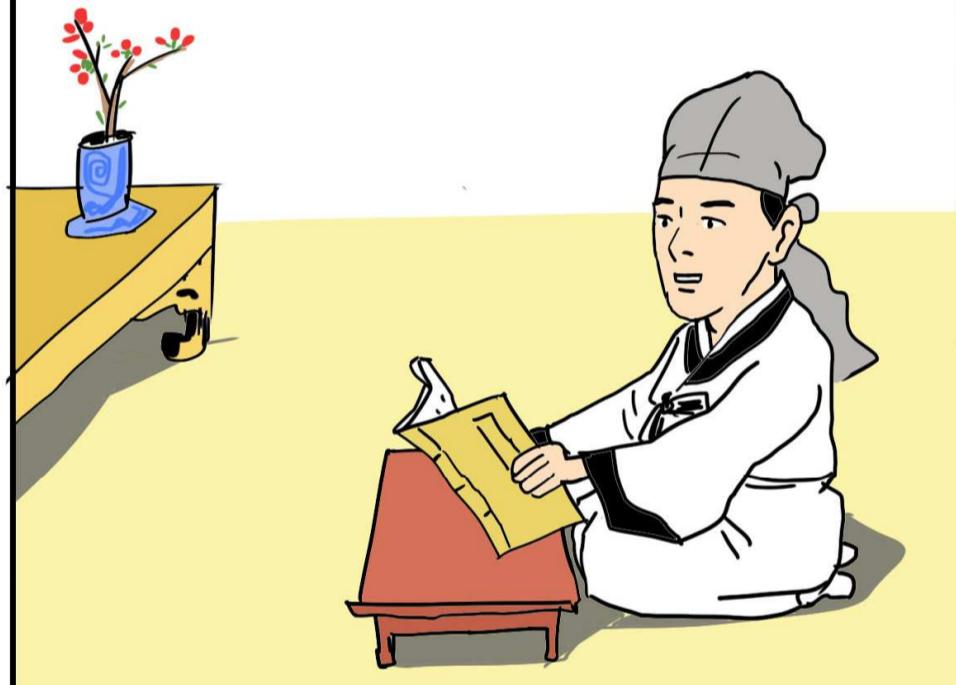
이리하여 퇴계의 묘소 아래에 묻하게 된 것이다.



(2) 이웃 사랑 : 논을 밟으로 바꾼 배려



퇴계는 젊어서 집에서 학문을 하고



여가에는 농사를 지었다.



우리 논은 물목이
가까워 가뭄에도
물 걱정 안해서 좋아!



가까워서
좋겠네
좋겠어.



우리 논은 물목에서
멀어 앞집 논이 물을 대면
우린 물 부족으로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

음, 물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는 체
한다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이웃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논에 물을 안대야
저 집 논이 산다고하니...

됐네, 물이 필요 없는
밭농사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되는 걸!

퇴계는 그날로 자기 논을 밭으로 바꾸어 버렸다.

물꼬를 막고
흙을 돋우고~~

자 이제 물을
맘대로 쓰셔도 되요.

감사합니다.

퇴계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사정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덕분에 올해 논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우리 밭에도 작물이
잘되서 걱정없게
되었답니다.

(3) 제자의 부부화목을 위하여(6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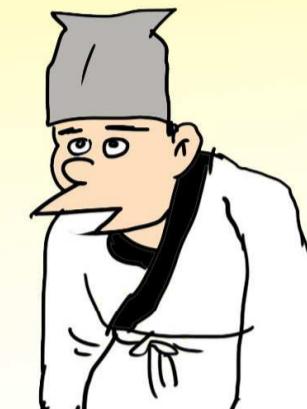


고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고향엘?

내일 아침은 우리 집에 와서
들고 가게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네가 먼길을 떠나니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게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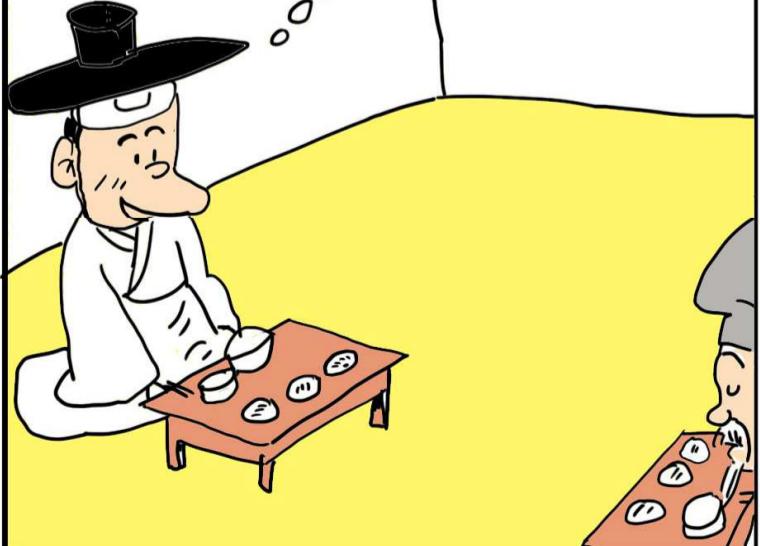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선생님댁에서 식사를
하다니 참으로 영광이다.



밥상은 퇴계가 늘 먹는 차림이었다.

일식 3찬으로
조촐하구나.



나으리 승능입니다.

이리 주시게
내가 전달하지.



아~ 선생님은
종한테도 함부로
안하시는구나.

종이란 신분이 천할 뿐
나와 같은 사람인데,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선생님, 아침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걸
가져가게

길에서 뜯어보지 말고
집에 도착해서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지?
아 난 궁금하면 못참는데...

에잇, 빨리 뜯어보고 싶으니
축지법을 쓰자!

집 앞까지 오느라 축지법을
썼더니 숨이 차다, 헥헥

과연 무슨 내용인지
이젠 봐도 되겠지.

잉?!

아끼는 제자인 그대가
부인과 사이가 안좋다하니
개탄해 마지않을 일일세.

훌륭한 부인을 두고도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성인들의 말씀을
글로만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말을 깊이 명심하고 자네를
알뜰히 지켜오고 있는 부인 곁으로
돌아가주기를 이 늙은이는
간곡히 바라는 바이네.

선생님!

